경북지방우정청 KOREA POST 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시점 배포 2026.11.2.(월) 오전

북대구우체국-대구북부경찰서, ‘안심동행 프로젝트 ’ 협약 체결

집배원 현장 네트워크 활용해 범죄예방 협력,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



김보경 북대구우체국장과 김유식 대구북부경찰서장이 10월 29일 ‘안심동행 프로젝트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. **<사진 북대구우체국 제공>**

경북지방우정청 북대구우체국(국장 김보경)은 10월 29일 대구 북부경찰서(서장 김유식)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‘안심동행 프로젝트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과 택배절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매일 지역 곳곳을 누비는 우체국 집배원의 현장 네트워크와 경찰의 범죄예방 역량을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.

협약에 따라 북부경찰서는 집배원을 대상으로 택배 절도 등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북대구우체국은 집배원이 배달업무 중 범죄 의심 상황이나 범죄 취약지역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[비긴급], 112[긴급] 로 신고하는 범죄신고 협력망을 운영한다.

또한, 우체국은 우편차량에 범죄예방 홍보물을 부착하고 고객 순번대기표에 보이스피싱 예방문구를 넣는 등 범죄예방 파트너로서 홍보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.

김보경 북대구우체국장은 “집배원 인프라를 활용한 범죄예방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” 이라며 “앞으로도 지역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” 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북대구우체국 우편물류과	책임자	과 장	장경난 (053-310-3050)
		담당자	물류실장	추희숙 (053-310-3060)

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
내삶을 채우는 디지털·AI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